

특별특리

정읍 농생명융복합지구 큰 성과

김제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홍형갑)는 관내 금안농협(조합장 최승운), 용지농협(조합장 박광양), 농가주부모임, 새마을회와 공동으로 21일 성덕 남포 정보화 마을과 용지 황토마을에서 여름 휴가철 맞이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다.

21일 농협과 농가주부모임, 새마을회 관계자 등 30여명은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성덕 남포 정보화 마을과 용지 황토마을에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으로 마을 어귀 청소와 쓰레기 줍기, 페비닐 수거 등 다양하게 도시 관광객 맞이 마을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홍형갑 지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름 휴가철 도시민이 깨끗한 우리 고장 김제의 농촌마을을 오고 싶도록 만들고 또 농협의 새 농촌운동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교류 활동 중 하나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교월동 무더위쉼터 등 점검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김태환)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올 여름은 예년보다 폭염특보가 빈번하게 발표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교월동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36개 경로당과 공공기관 등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 운영현황을 일제 점검하였다.

또한 한 낮 폭염시 주민들의 야외활동 자제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노인사회활동 참여 어르신들의 작업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폭염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환 교월동장은 "홍합어르신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은 물론 동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경찰서, 테러대응 간담회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최근 프랑스 니스 트러 테러사건 등 국외 테러사건이 증가하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청, 소방서, 보건소 105연대 1대대 등 5개소 유관기관과 테러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위해 부안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테러발생 초동단계에서 경찰서장 지휘·통제권 강화 등 협력과 함께 각 기관별 임무 및 상호 협조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현신 부안경찰서장은 국외 테러가 급증함에 따라 대한민국도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국민들이 테러로부터 안심하고 맘 편히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기관별 임무 및 상호 지원사항을 확인·점검하여 테러대응에 완벽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관리 강화

정읍시보건소가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 및 수계시설 사용의 증가로 레지오넬라균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레지오넬라균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냉각탑수와 샤워기, 수도꼭지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이 비말형 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된다.

보건소는 레지오넬라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역 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냉각탑수를 비롯 병동 내 샤워실, 화장실 수도 냉·온수 및 대형 목욕탕의 탕내 냉·온수, 샤워기 냉·온수에 대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 한 바 있다. /정읍=김태환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1주년... 제2의 대덕밸리로 급부상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난해 7월 13일 전국에서 5번째로 전주·완주·정읍 3개 시·군에 걸쳐 16.335km² 지정됐다.

지역별로는 정읍의 농생명융복합 거점지구 1.542km² 전주의 산업화 촉진지구 10.275km² 완주의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4.542km²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타 지역에 비해 출발은 늦었으나,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북의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읍시 신정동 일대 정읍특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읍입안전선연구본부 등 국책연구기관이 3개나 소재하고 있어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탄탄한 연구기반시설을 갖춰가며 제2의 대덕밸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3대 국책연구소가 소재한 정읍은 연구소의 첨단기술을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특구로 지정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연구소기업 설립과 첨단기술기업을 창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조성된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는 7월 현재까지 5개 연구센



상당 중에 있는 9개 기업이 올해 하반기 입주계약을 체결(연3,154명)할 계획이다.

터와 7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4만5,009명)했고, 상당 중에 있는 9개 기업이 올해 하반기 입주계약을 체결(3만3,154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까지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할 목표로 기업유치에 전 행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창업한 기업 중 연구소기업 4개 이상과 첨단기술기업 3개 이상을 설립추진 중에 있어, 향후 정읍시는 물론 전북발전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신정동에 3개의 국책연구소를 유치하고 첨단과학산단을 조성하는 등 첨단과학산업 육성에 시장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현재 500여명의 연구인력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 중에 있고, 첨단기술 연구 성과물이 속속 나오면서 정읍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주)다원시스의 전동차생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부지 6만6천여㎡는 98%의 부지 매입을 마치고 이후 잔여 부지 매입 및 건축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연내에 공장 건축에 착공할 예정이다.

(주)다원시스 전동차 생산공장 건립 진행 순조

사업예정부지 84% 매입 완료

지난해 10월 7일 정읍시와 전북도(주)다원시스가 협약 체결한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이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이 협조한 가운데 약 22만1천여㎡ 규모의 사업예정부지가 84% 매입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중 (주)다원시스의 전동차생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부지 6만6천여㎡는 98%의 부지 매입을 마치고 이후 잔여

부지 매입 및 건축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연내에 공장 건축에 착공할 예정이다.

그간 2018년 1월 (주)다원시스 전동차생산 공장기공을 목표로 전라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업체론회를 실시하고, 공장건립 착공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정적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일에는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의 인근 마을 주민 30여명과 함께 (주)다

원시스 공장 내부건축을 다녀와 주민들이 우려했던 환경·소음공해 등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 전동차와 의료가 생산 분야에서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다원시스는 입안면 하루리 4리영 일원에 2017년 말까지 6만6천여㎡의 부지에 300여억원을 투입, 연간 360량 이상의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축하고, 2018년 초에는 공장기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읍=김태환기자

김제농기센터, 벼농사 후기관리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고품질 쌀 생산과 수량 증수를 위해 병해충 종합방제, 벼 이삭거름 사용, 물 관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 발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잎집무늬마름병과 흑병내방, 벼 잎골파리, 벼잎선충 이화병나방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논을 잘 살펴보고 병해충 발생초기 병해충 종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흑병내방은 눈에 피해 일이 한 두개 보일 때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출수가 한창인 조생종 벼는 반듯이 벼 이삭도열병, 벼벌레, 흑병내방, 잎집무늬마름병 등을 종합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1모작 벼는 생식생장기인 유수형성기이므로 논물을 충분히 대어주고, 이삭거름 사용은 출수 전 15~17일인 7월 말경에 보통 논을 기준으로 10a(300평)당 N-K전용비(18-0-18) 11~12g를 품종 토질, 벼의 엽색 등 자신의 논토양 특성에 따라 시비량을 가감해야 한다.

특히 7월 상순 벼 잎이 마르는 등 건조피해가 우려되는데, 현재 1모작 논은 벼의 이삭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논에 물을 충분히 대어 주어야 한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수량 증수를 위해 병해충 종합방제 등 벼의 농사 후기관리에 최선을 다해 풍년농사를 달성하자"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청 노사협의회 가져

부안군은 지난 20일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김종규 부안군수와 권재민 부군수, 노사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부안군청 노사협의회가 개최됐다.

부안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노사협의회는 부안군청 노사협의회 의장 선출 및 운영규정 제정, 노 측에서 제시한 안전에 대해 자유롭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됐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사 측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위원과 노 측 이말순(보건소) 위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부안군은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은 슬로우 시티를 실현하는 국가 자전거도로와 도심외곽 자전거 순환도로 등을 연계한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부안 동진대교~줄포 우포리 국가 자전거도로 완공 막바지

부안군이 동진면 동진대교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33km의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막바지 작업을 펼치고 있다.

부안군은 자전거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진행해오며 올해 마지막 구간인 동진면 하장교차로에서 행중교차로 2.4km 구간이 오는 9월까지 완료되면 동진면 동진대교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3km의 국가 자전거도로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슬로우 시티를 실현하는 안전한 자전거도로로 기반시설을 조성

하고 자전거도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국가 자전거도로와 도심외곽 자전거 순환도로 등을 연계한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민생기 부안군은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구축 및 부안군민 전체 자전거보험 가입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구축과 점점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전거도로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여성가족과, 저소득층 노인 건강검진

김제시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건강 챙기기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무료 노인건강검진은 김제유석 병원에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건강검진은 치매검사를 비롯한 12개 항목에 대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한해 고혈압 진단 외 29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2차 검진을 실시

한다. 또한 검진 후 유질환자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집중관리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진료는 물론 질병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김제시 관계자는 "질병은 치료보다 조기발견이 더욱 중요하다"며 "질병으로부터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철저한 검진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지난 7월 11일자로 부임한 김민원 금산면장은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애로사항 청취 등 대민행정에 정성을 쏟고 있다.

김제시 금산면, 연일 현장행정 이어가

이장단협 임원진 간담회·경로당 등 방문

지난 7월 11일자로 부임한 김민원 금산면장은 현장속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부임 바로 다음날인 12일부터 금산면 이장단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루에도 5~6차례 이상 경로당 및 마을 모정 등을 방문,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애로사항 청취 등 대민행정에 정성을 쏟고 있다.

특히 경로당을 방문해서는 "연일 폭염주의보 발령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땀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실 때는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한다"며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겼다.

또한 평소 민원불편사항, 지역현안사업, 기타 여러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고,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며, "불편한 사항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뿐만 아니라, 무탈 앞으로 다가온 금산면민의 날(2016. 9. 3. 개척 예정)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면민의 날 소문영위원진과의 만남 등 연일 광복행보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